

2017년 8월 11일

# 투자전략 Daily

• 경제분석

달러화의 제자리

• 중화권 증시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홍콩 증시 하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이엘피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엠텍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강원랜드, 인크로스, 한국가스공사, 한화생명, 현대백화점,  
코스맥스, 한섬, CJ E&M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켈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해 외 주 식 | 백찬규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글로벌기업 | 정희석 ☎ 3276-6277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 3276-6191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4(금)	8/7(월)	8/8(화)	8/9(수)	8/1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95.45	2,398.75	2,394.73	2,368.39	2,359.47	
	등락폭	8.6	3.3	-4.02	-26.34	-8.92	
	등락종목	상승(상한)	469(2)	458(0)	345(0)	202(0)	266(1)
		하락(하한)	335(0)	339(0)	447(0)	611(0)	539(0)
	ADR	88.11	93.36	92.00	90.48	87.44	
	이격도	10 일	98.96	99.31	99.33	98.51	98.48
		20 일	99.04	99.14	98.98	97.94	97.67
	투자심리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274	244	253	234	278	
	거래대금 (십억 원)	5,084	4,428	4,624	4,694	6,182	
코스닥	코스닥지수	641.58	648.39	651.67	642.87	640.04	
	등락폭	-1.51	6.81	3.28	-8.8	-2.83	
	등락종목	상승(상한)	534(1)	748(1)	602(3)	208(2)	327(1)
		하락(하한)	555(0)	344(0)	495(0)	926(0)	802(0)
	ADR	100.33	101.35	101.81	100.39	99.92	
	이격도	10 일	97.50	98.97	99.76	98.78	98.75
		20 일	97.21	98.31	98.84	97.56	97.23
	투자심리	30	30	40	40	40	
	거래량 (백만 주)	459	456	608	849	764	
	거래대금 (십억 원)	2,671	2,449	2,588	3,023	3,145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451.7	1,604.6	1,964.3	903.2	98.6	173.2	82.0	14.6	692.7	66.7
	매도	2,616.1	1,901.8	1,528.8	654.9	80.4	161.7	88.1	19.0	524.6	40.6
	순매수	-164.4	-297.2	435.5	248.3	18.2	11.5	-6.1	-4.5	168.1	26.1
	8월 누계	-152.9	-835.4	730.9	574.0	29.3	114.1	-60.4	-39.7	113.5	257.5
	17년 누계	-5,118.2	7,863.3	-5,747.2	4,002.0	-1,530.1	-3,650.9	-270.0	-601.8	-3,696.7	3,002.2
코스닥	매수	2,740.5	249.9	148.3	48.4	11.5	28.2	19.1	2.0	39.1	12.4
	매도	2,761.7	225.7	134.1	42.8	13.8	29.5	20.3	2.6	25.2	29.5
	순매수	-21.2	24.2	14.2	5.6	-2.3	-1.3	-1.2	-0.6	13.9	-17.2
	8월 누계	175.8	-133.9	1.9	13.1	-0.5	-3.1	25.0	-1.4	-31.2	-43.7
	17년 누계	2,798.3	1,087.3	-2,763.6	-658.6	-366.6	-619.7	-321.5	-70.3	-727.0	-1,122.1

## 달러화의 제자리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46배
12MF PBR	0.97배
Yield Gap	8.7%P

- ▶ 7월말을 기점으로 ‘달러화 바닥통과 시그널’ 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 ▶ 미국경기, 물가와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 정상화되면서 달러화 반등
- ▶ 원/달러 환율은 지정학적 위험과 결부되어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원화 가치 고평가 해소 기대

### ■ 달러화 상승의 이유

8월 들어 달러화 약세가 주춤하고 있다. 유로화 대비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최근 들어 바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7월말을 기점으로 ‘달러화 바닥통과 시그널’ 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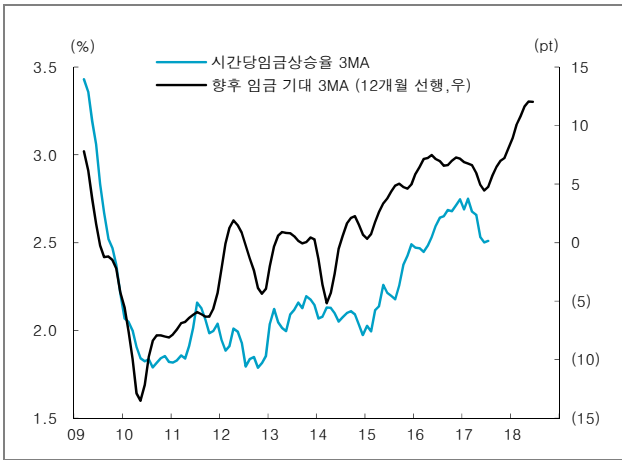
지금은 미국의 물가 하락세가 멈추면서 하반기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진행되는 초기 국면이다. 특히 지난 주 시간당임금 상승률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여진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 선행하는 소비자 임금 기대심리에 비춰보면 향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

이에 따라 이번 주 소비자물가에 시장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비 0.2% 전년비 1.8%를 전망하고 있다.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난 주 0.1%에서 0.2%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결과만 나오더라도 물가하락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희석될 것이다. 따라서 물가하락이 멈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달러화 상승을 이끄는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2].

이러한 환경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다소간의 변동성을 수반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경기과 물가,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 정상화되면서 원화 가치의 고평가가 해소되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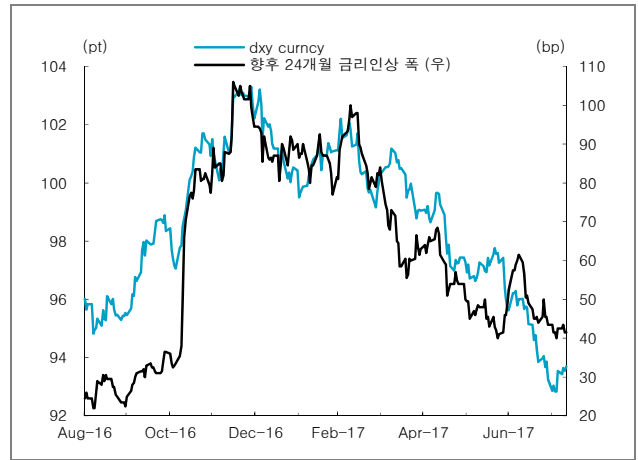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원화 가치의 고평가 해소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아직 내수경기 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가치의 고평가가 지속되면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이고 동시에 국내 물가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위험에 대한 회피심리 보다는 미국 경기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림 1] 시간당 임금상승률과 향후 임금 기대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향후 24개월 연준금리 인상 속도와 달러화 지수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Global Economic Data Preview (8/14~8/21)

다음주는 미국의 소매판매와 중국의 통화량 지표 및 실물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7월 미국 고용지표의 호조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재차 상승한 가운데 미국 경기의 핵심인 소비의 회복 강도를 다음 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은 올해 상반기 경기 서프라이즈가 3분기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7월 실물지표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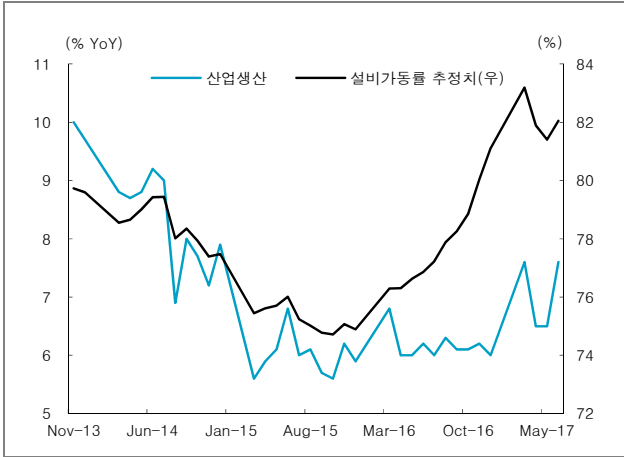
■ 7월 중국 산업생산(8/14), 증가율 둔화 전망

7월 중국 산업생산은 7.3% YoY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7.6% YoY, 시장 예상치 7.1% YoY). 6월 산업생산을 포함한 투자, 소비 등 실물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상반기 중국 경기의 연착륙을 이끌었다. 7월에도 인민은행의 중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과잉산업 구조조정도 상반기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서 양호한 제조업 경기 흐름은 유지될 전망이다.

먼저 산업생산과 생산자물가지수로 추정된 중국 제조업 가동률이 6월 반등에 성공했다. 통상 설비가동률의 상승은 기업들의 낙관적인 경기전망과 함께 설비 증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동률 증가에 따른 산업생산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생산재 수주 - 재고 스프레드 역시 6월 소폭 반등에 성공하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중국 철강가격 상승폭도 크게 증가하며 7월 산업생산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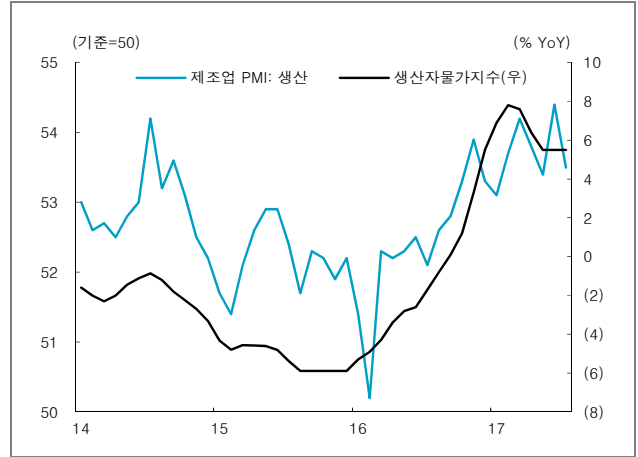
다만 7월 제조업 PMI의 둔화와 주요 기업의 조강생산량 둔화 등은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의 둔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7월 제조업 PMI의 세부 항목 중 생산항목의 하락폭이 0.9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재고확충에 대한 수요도 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 2월 고점 확인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PPI 개선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 효과가 소멸되고 있어 제조업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그림 3] 중국 산업생산과 설비가동률 추이



참고: 설비가동률 추정치 =  $74.6 + (0.59 * \text{산업생산}) + (0.54 * \text{생산자물가지수})$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제조업 PMI 생산항목과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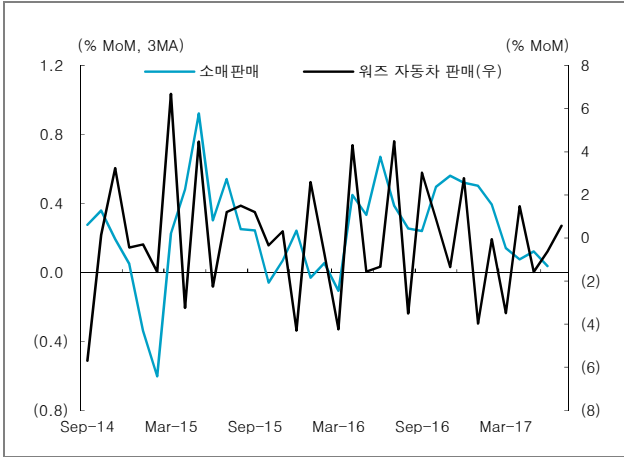
■ 7월 미국 소매판매(8/15), 서프라이즈 기대

7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비 0.6% MoM 증가하며(6월 0.0% MoM, 시장 예상치 0.4% MoM)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1) 7월 자동차 판매 반등 2) 가솔린 가격 회복으로 가솔린 소매판매액 증가 3) 견고한 고용시장과 소득 개선에 따른 소비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률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 성향이 강화된 모습이다. 7월 소매판매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미국 7월 소매판매에서 가장 큰 반등이 기대되는 부분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이다. 소매판매 발표에 앞서 자동차 판매를 가늠하는 워즈 자동차판매가 7월 16.69만 대로 3개월만에 반등에서 성공했다. 소폭의 반등폭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자동차 판매와 함께 주택시장의 견조한 흐름까지 더해지며 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7월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솔린 가격이 전월비 6.0% 증가하며 최근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솔린 소매판매액의 반등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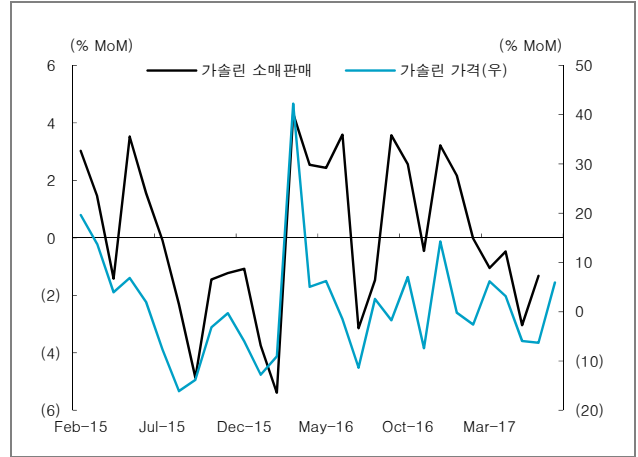
한편 7월 미국의 명목소득(민간부문 고용자수\*주당 평균근로시간\*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와 세부 항목 지수 역시 최근 부진에 벗어나며 큰 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6월 저축률도 3.8%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미국 가계의 소비성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초부터 이어진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와 주택가격 상승세로 기대되는 자산효과 역시 미국 소비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요인이다.

[그림 5] 미국 소매판매와 워즈 자동차 판매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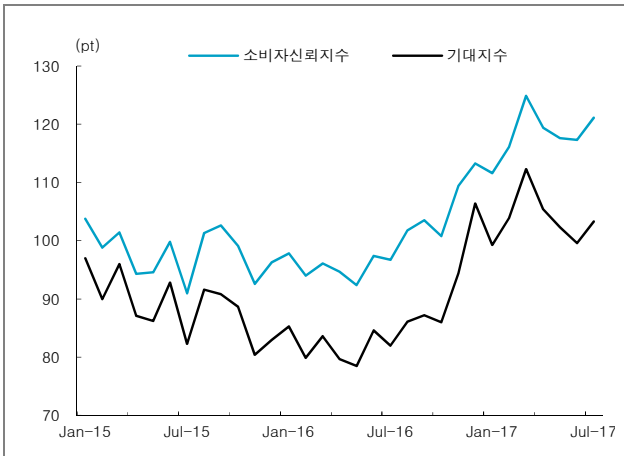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6] 가솔린 소매판매와 가솔린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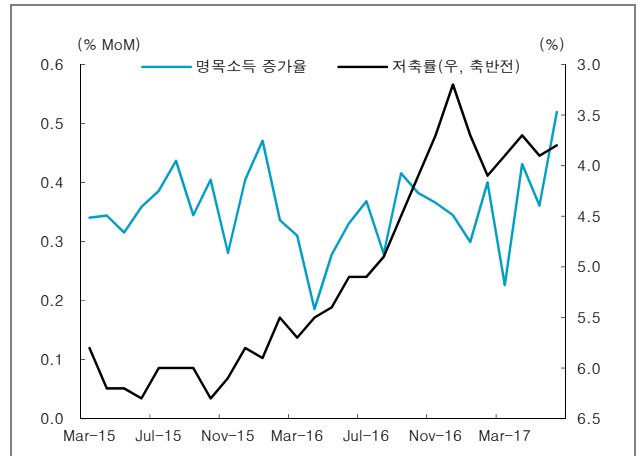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7]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와 기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미국 명목소득 증가율과 저축률 추이



자료: EPFR,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홍콩 증시 하락

- ▶ 상해종합지수는 0.4% 하락, 시크리컬 업종 하락과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악재
- ▶ 홍콩H지수는 1.7% 하락, 북한과 미국의 강경발언이 지속되며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0.4% 하락,  
철강, 비철금속, 석탄, 통신,  
의료 등의 업종 약세

상해종합지수는 0.4% 하락한 3,262p로 마감했다. 거래대금은 2,519억위안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6% 증가했다. 보합세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최근 강세랠리를 이어오던 시크리컬 업종의 급락세와 함께 금융주에 대한 매물까지 출회되면서 1%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 하지만 오후 들어 은행과 증권주가 재차 강세로 돌아서며 하락폭이 축소됐다. 또한 직전일에 이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약세를 보인 것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한편 금일 위안화 고시환율이 6.677위안/달러로 11개월만에 6.7위안/달러를 밀돌며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축소된 것은 증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비철금속, 석탄, 통신, 의료, 화공 등이 하락했다. 메인보드의 약세 속에 차스닥 지수도 0.5% 하락한 1,754p로 마감했다. 불안한 대외 환경 속에 외국인들은 상해A주를 순 매도한 반면 심천 A주는 순매수했다.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7% 하락,  
금융, 부동산, 유틸리티, 에  
너지 등의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1.7% 하락한 10,782p로 마감했다. 약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하락폭이 확대됐다. 북한과 미국의 강경발언이 지속되면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상해거래소를 통해 본토자금이 유출된 것이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 차익실현 매물 출회 속에 금융주가 급락했고, 그 외에도 부동산, 유틸리티, 에너지 등의 업종이 하락했다. 항셱지수도 부동산과 금융주의 약세 속에 1.1% 하락한 27,444p로 마감했고, 홍콩 증시의 상대적 약세 속에 A/H 프리미엄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5% 상승한 128.5p로 마감했다.

####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8/10 (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261.75	-0.42	-0.34	1.53	5.09
심천종합	1,872.60	-0.69	0.18	-1.72	-4.90
차스닥	1,753.67	-0.53	1.19	-2.75	-10.62
홍콩H	10,782.20	-1.65	-2.00	5.56	14.77
Shibor 7일물 금리(% , %p)	2.88	-0.19	0.38	3.33	13.12
Shibor 1개월 금리(% , %p)	3.87	-0.17	-0.35	-7.02	17.04
중국국채 3년물(% , %p)	3.65	-0.28	0.83	1.77	20.53
위안/달러 고시환율	6.6770	-0.45	-0.54	-1.76	-3.75
역내 위안/달러	6.6590	0.23	0.87	2.17	4.29
역외 위안/달러	6.6763	0.24	0.80	1.94	4.49

주: 10일 오후 5시 49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지속되며 하락

- 북미간 긴장감이 고조되며 뉴욕증시가 이를 연속 하락한 가운데 2,360P선을 위협하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국가지방단체를 비롯한 기관 매수세로 장 초반 2,370P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며 장중 1% 이상 급락하는 등 약세를 보임. 장 후반 금융투자, 연기금 등 매수세가 강화되며 낙폭을 다소 줄였으나 2,360P선 회복에 실패하며 사흘 연속 하락 마감. 코스닥도 장중 1% 이상 급락하며 640P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으나 기관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다소 줄여 640P로 마감. 북미간 긴장감이 지속된 가운데 주요 아시아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2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에스맥, 한섬, 한화생명, CJ프레시웨이, 사람인에이치알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 수출 호조에 따른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급등. SK텔레콤과 함께 '무선 5G 릴레이' 중계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에 케이엠더블유가 강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고객사 향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코스맥스가 강세를 보임. 또한, '문재인 케어' 발표에 힘입어 제약,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노인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한다는 방침에 덴티움, 오스템임플란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치과치료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미용·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손해보험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초대형 IB 신규업무 인가 심사가 보류되며 삼성증권이 하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파마리서치프로덕트 (214450) ▶41,700 (+7.20%)	3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 급등세 - 하반기 본격적인 중국 수출 성과에 따른 실적 호조 전망에 급등세 - 당사는 세포재생물질인 PDRN과 PN물질의원천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미용제품과 재생신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용제품 매출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컬러레이(900310) ▶4,050 (+10.66%)	신규 상장 첫날 초강세 - 중국 화장품 필 안료 원재료 시장 1위 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밀도는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2분기 실적 호조 및 중간배당 결정 소식에 공모가를 웃돌며 초강세 -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3.6%, 34.5%, 34.2%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으며, 순이익의 20%를 현금 배당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
치과치료 관련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기대감에 강세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노인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소식에 강세 - 메타바이오메드(059210, +7.92%), 디오(039840, +6.06%), 오스템임플란트(048260, +4.48%), 바텍(043150, +2.15%), 덴티움(145720, +1.96%)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한화생명(088350) ▶7,830 (+3.03%)	- 2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3분기도 양호한 실적 전망에 신고가 경신
드림시큐리티(203650) ▶4,010 (+19.70%)	- 카카오뱅크 열풍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된 가운데 '단기과열완화장치' 해제되며 또다시 초강세 속 신고가 경신

## 단기 유망종목: 이엘피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이엘피 (063760)	26,000 (-5.3)	27,450 (8/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진율이 높은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50%까지 확대되며 수익성 향상 전망</li> <li>- 본사 이전을 통해 2019년까지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여 재무건전성 우수</li> <li>- 2017년 예상 PER 7.6배로 디스플레이 장비주 평균 PER 10.2배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li> </ul>
코엘패션 (033290)	4,880 (+17.2)	4,16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와 추가 라이선스 브랜드 확대 가능</li> <li>- 신규 런칭한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고 기존 언더웨어 및 스포츠웨어 사업부도 견조한 성장 전망</li> <li>- '17년 예상 PER 9.2배로 해외진출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 대비 저평가 구간</li> </ul>
조광페인트 (004910)	11,850 (+9.7)	10,800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공용 도료 1위 업체로 국내 도료 업체들의 출혈경쟁 완화를 통한 수혜 전망</li> <li>- 조선용 도료를 생산하는 조광요원의 금년 지분법이익은 건조량 감소로 전년의 절반인 30억원에 그치겠으나 2018년부터 빠르게 개선될 전망</li> <li>- 부채비율 42%, PBR 0.7배로 지분법이익 악화를 감안해도 2017F PER 7.5배로 저평가 매력 상존</li> </ul>
피에스텍 (002230)	6,640 (+4.4)	6,360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AMI(지능형 계량시스템) 설치 수요 증가에 따라 가파른 외형성장 전망</li> <li>- 작년 4월 이뤄진 공장이전과 증설에 이어 올해 8월 나주 신공장 완공으로 급증하는 수주에 대응 가능</li> <li>- 850억에 육박하는 현금성자산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M&amp;A 추진으로 잠재성장동력 강화 예상</li> </ul>
백산 (035150)	9,540 (+5.3)	9,060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2위 합성피혁 공급자로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운동화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지속</li> <li>- 차량용 내장재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며, 전자제품 케이스 매출도 애플형 공급모델 추가로 증가 전망</li> <li>- 최근 증설한 베트남 공장의 전면 가동으로 수익성이 높은 스웨이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 예상</li> </ul>
대주전자재료 (078600)	8,140 (+21.1)	6,720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도성 페이스트 부문 주요 고객사에 삼성전기가 추가되며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li> <li>-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의 사용처가 IT 부문에서 자동차 전장 부문으로 확장되며 MLCC 수요 증가 전망</li> <li>- 일반용 LED 부문에서 발생하던 형광체 매출이 자동차용 PIG(Phosphor in Glass) 매출까지 확대되며 실적 성장 전망</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이엘피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이엠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엠텍 (091120)	12,600 (-10.6)	14,100 (7/20)	256	21	15	1,060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li> <li>-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li> </ul>				
KG ETS (151860)	4,255 (+0.8)	4,220 (7/05)	125	20	15	428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팀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li> <li>-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li> <li>-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li> </ul>				
SK (034730)	273,500 (-2.3)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li> <li>-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li> </ul>				
풍산 (103140)	53,900 (+32.1)	40,800 (5/23)	2,970	279	190	6,766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추가 할인 요인 제거</li> <li>-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li> </ul>				
이지바이오 (035810)	6,760 (+2.6)	6,590 (5/17)	1,438	99	41	754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계 및 돈육 시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에 따라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li> <li>- 올해 당사의 자회사인 옵티팜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li> <li>- 6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당사의 주가가 재조명될 가능성 존재</li> </ul>				
오텍 (067170)	13,000 (+14.5)	11,350 (4/6)	828	37	17	1,288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li> <li>-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li> <li>-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강원랜드(035250)

매수(유지)

목표가: 46,000원(유지)

종가(8/9): 37,300원

### 실망스러운 실적보다 중요한 것

#### ■ What's new :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2분기 영업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와 우리 추정치를 각각 11.8%, 10.8% 하회했다. 연결 매출액은 3,87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 줄었고, 영업이익은 1,355억 원으로 15.5% 감소했다. 카지노 매출액은 드롭액과 홀드올이 부진해 3,750억 원으로 6.5% 줄었다. 비카지노 매출액은 12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늘었다. 세부 영업 부문별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VIP영업장(-2.9%), 슬롯머신(-6.3%), 일반 테이블(-9.3%) 순이었다. 영업이익률은 35.0%로 전년동기대비 3.9%p 하락했는데 외형 감소와 고정비 부담 증가 탓이다.

#### ■ Positives : 비카지노 매출액 11% 증가

비카지노 매출액은 12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했다. 세부 부문별 매출액은 호텔 63억 원(+11.2% YoY), 콘도 32억 원(+11.3% YoY), 골프 14억 원(+1.4% YoY), 스키장 6억 원(+39.5% YoY), 자회사 5.3억 원(+4.1%) 였다. 카지노 방문객수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콘도 등 비카지노 부문은 매출 성장을 지속했다.

#### ■ Negatives : 부진한 카지노 실적 지속

카지노 부문 실적 부진이 전분기에 이어 지속됐다. 2분기 드롭액은 1조 6,44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고, 홀드올은 22.8%로 0.1%p 하락했다. 카지노 방문객수가 725,580명으로 0.8%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인당드롭액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했으며 13년 3분기 이후 첫 역성장이었다. 강원랜드를 둘러싼 기부금, 매출총량제 등의 대외 노이즈 등을 감안했을 때 소극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결론 : 대외 불확실성 해소 시점 가까워져, 매수 의견 유지

강원랜드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46,000원(목표PER 18배, 과거 5년 평균)을 유지한다. 평창올림픽(18년 2월 9일~25일) 개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지난 달 말 열린 행사에서 대통령이 공기업의 후원을 당부한 만큼 기부금 관련 불확실성 해소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판단한다. 기부금은 500억 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불확실성 해소시 영업 정상화로 테이블 가동률 상승 등이 예상돼 카지노 부문 성과 확대 재개로 이익 증가와 함께 주가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평창올림픽 관련 기부금은 2017년 실적 추정치에는 미반영되어 있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컨센서스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04	387	(4.2)	407	(8.5)	(6.0)	1,657	1,688
영업이익	152	135	(11.8)	154	(16.6)	(15.5)	576	597
영업이익률	37.6	35.0	(2.6)	37.8	(3.4)	(3.9)	34.7	35.4
세전이익	156	143	(8.4)	154	(14.9)	(12.8)	577	604
순이익	119	110	(7.5)	119	(14.9)	(10.7)	446	465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인크로스(216050)

<b>매수(유지)</b>
목표가: 75,000원(유지)
종가(8/9): 49,700원

## 2Q17 Review: 아쉬운 2분기, 그래도 기대되는 하반기

### ■ What's new : 2분기 실적은 추정치를 하회

2017년 2분기 매출액은 9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8% 증가했다. 부문별 매출액은 미디어렙 48억원(+28.5% YoY), 광고 플랫폼 36억원(+53.9%), 서비스 및 기타 12억원(-20.2%)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2016년 2분기에 대손 환입 8억원이 반영돼 일회적으로 판관비가 낮았고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40.2%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29.2%로 전년동기 대비 2.7%p 상승(일회성 요인을 제거한 2016년 대비)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우리 추정치를 각각 10.7%와 15.0% 하회했다.

### ■ Positives : 미디어렙의 cash cow 역할 지속

미디어렙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미디어렙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0% 증가했는데 이번 2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8.5% 늘었다. 2분기부터 광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고 SMR(Smart Media Rep)과 구글의 공식 미디어렙으로 선정된 효과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국내 주요 대형 광고 대행사의 공식 미디어렙으로 선정돼 하반기 영업 환경은 더욱 우호적이다. 취급고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가 제한적인 만큼 미디어렙 매출 증가는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 Negatives : 기대 이하의 광고 플랫폼 매출

2분기 실적이 우리 추정치를 하회한 이유는 광고 플랫폼 매출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SK플래닛으로부터 양수한 '시럽애드' 실적이 2분기부터 반영되면서 광고 플랫폼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53.9% 증가했다. 이를 제외하면 광고 플랫폼 매출 증가율은 12.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4월 중순에 출시된 노출형 광고(광고를 skip 할 수 없는 상품) 판매율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노출형 광고는 사업 초기 단계이며 매체 커버리지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판매율이 본격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결론 : 목표주가 75,000원 유지

미디어렙의 안정적인 cash cow 역할이 지속되고, 광고 플랫폼의 이익 기여도가 확대되며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31.3%와 28.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2개월 forward PER은 13.6배로 valuation 부담이 낮다. 광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단기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5,000원(12MF EPS에 목표 PER 20배 적용)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0.7	9.5	(10.7)	-	52.4	26.8	41.3	43.9
영업이익	3.3	2.8	(15.0)	-	188.9	0.6	11.5	12.4
영업이익률	30.7	29.2	(1.5)	-	13.8	(7.6)	28.0	28.2
세전이익	3.3	2.9	(10.8)	-	163.3	2.7	11.8	12.9
순이익	2.6	2.3	(12.5)	-	166.9	3.0	9.1	9.8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한국가스공사(036460)

<b>매수(유지)</b>
목표가: 62,000원(유지)
종가(8/9): 50,400원

## 장기투자 매력 유효

### ■ What's new : 2분기 영업손실 342억원으로 추정치를 하회

2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실 규모는 각각 4조 258억원, 342억원으로, 예상 영업손실 68억원을 하회했다. 2분기 LNG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했음에도, 원료비 연동제로 유가상승에 따른 LNG 수입 가격이 32.1% 인상돼,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8% 늘어났다. 고정적 비용(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은 매 분기마다 균등하게 발생하는데, 2~3분기에는 판매량이 줄어드는 비수기여서 적자가 발생한다. 가스공사의 국내 보장이익은 지난 4월말 전년대비 6.0% 늘어난 것으로 확정됐고 올해 전부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회계상 추정 물량배분(1H16 64% → 1H17 60%)에 따른 이익이 전년대비 하반기로 쏠려,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작년 2분기 294억원에서 올해 2분기 564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커졌다.

### ■ Positives : 정부 발 정책관련 호재 계속

지난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인상(6원/kg ↑)이 포함됐다. 또한 향후 원전 사후처리 비용 재검토, LNG 세제 및 부담금 완화 등으로 천연가스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과거 5조원에 달했던 미수금 잔액이 2분기말 기준 2,890억원으로 줄어, 올해 하반기에 전액 회수될 것이다. BC유 대비 도시가스 가격 경쟁력 회복, 천연가스 판매량 증가, 요금기저 증가, 투자보수율(WACC) 상승으로 보장이익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8% 전망).

### ■ Negatives : 해외 E&P 여진은 남아

이라크 아카스 프로젝트의 경우 IS 내전 장기화로 새로운 지역의 가스전을 찾는 중이다(나트시리아 가스전 추진 중). 이 과정에서 작년 4분기 3,335억원의 손상차손 반영에 이어 2분기에도 1,171억원의 추가 손상처리(제작 완료된 가스처리설비 기자재)가 있었다. 이제는 투자금 전액을 손상 처리해 더 이상 아카스에서 발생할 비용은 없다. 하지만 연말 GLNG와 사이프러스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으로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 ■ 결론 : 늘어나는 보장이익에 맞춰 주가상승 전망

신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 초 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이를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20년까지 국내 보장이익의 증가는 확정됐으며(표 3), 수요전망이 바뀐에 따라 2020년 이후의 보장이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주가도 국내사업 중심의 점진적인 ROE 상승에 따라 re-rating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62,000원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786	4,026	6.3	4,091	(47.8)	13.8	20,546	22,176
영업이익	(7)	(34)	nm	(14)	nm	nm	1,044	1,067
영업이익률	(0.2)	(0.8)	-0.7	-0.3	-11.6	-0.7	5.1	4.8
세전이익	(112)	(340)	nm	(178)	nm	nm	359	421
순이익	(87)	(259)	nm	(143)	nm	nm	280	340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한화생명(088350)

<b>매수(유지)</b>
목표가: 9,500원(상향)
종가(8/9): 7,600원

## 흠 잡을데 없는 어닝 서프라이즈

### ■ What's new :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

2Q17 당기순이익은 2,219억원(+90.2% YoY, +22.7% QoQ)으로 우리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 상회했다. 2Q 영국 부동산 매각 380억원, 주식 매각이익 400~500억원 등 투자이익 호조로 2Q 투자이익률은 4.0%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외 변액보증 옵션 환입이 1Q에 이어 2Q에 진행됨에 따라 호실적을 시현했다.

### ■ Positives : 변액보증옵션 준비금 환입으로 하반기 실적 상향 여지

국고채 5년물 금리는 2.045%로 연초 대비 25bp 상승했다. 한화생명은 국고채 5년물 기준 1.8~1.9% 수준을 유지하면 변액보증옵션 준비금 부담이 대부분 소멸된다. 시중금리 반등으로 변액보증금 환입은 3Q-4Q에도 예상되기에 하반기 실적 상향이 예상된다. 이외 2Q17 위험손해율은 73.2%로 전년 대비 6.5%p 하락, 전분기 대비 8.3%p 하락하며 상사 이후 최저 수준의 위험손해율을 시현했다. 위험률차 이익은 1,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 ■ Negatives : 오버행 부담이나 이겨낼 것

한화생명 주가가 공모가 8,200원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지분 15.25% 오버행 이슈가 제기될 전망이다. 상당한 물량이나 한화생명의 실적 개선, 업황 회복이 뚜렷한 구간이기에 물량 출현 시 단기 조정 후 주가 정상화를 예상된다.

###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500원으로 상향

상반기 실적에 힘입어 연간 순이익은 6,757억원으로 전년 대비 76.6% 증가할 전망이다. 하반기 변액보증옵션 환입 규모에 따라 추가 실적 상향 여지가 열려 있다. 3년간 반복된 실적 부진 요인이 올해 해소되며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예상된다, 2017년/2018년 순이익 추정치를 각 11.5%, 11.8% 상향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기존 8,500원에서 9,500원으로 12%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3년 평균 ROE 7.7%, 조정 CoE 9.4%, 12M Forward BPS 12,178원으로 산출한 적정PBR 0.78배를 적용했다. 올해 배당성향을 20%로 적용 시 배당수익률은 2.2%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7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차이	컨센서스
보험영업수익	2,472	2,401	(2.9)	2,134	-7.9	-1.0	10,043	10,144
보험손익	198	231	16.7	MM	-19.8	-38.7	1,010	MM
투자손익	806	823	2.1	MM	-2.7	5.6	3,231	-MM
당기순이익	190	222	16.8	168	22.7	90.2	676	540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현대백화점(069960)

**매수(유지)**

목표가: 130,000원(유지)

종가(8/9): 106,000원

###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 ■ What's new : 2Q17 영업이익 691억원(-11.3% YoY)

현대백화점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와 우리의 추정치를 하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1.3% 감소한 691억 원을 기록했다. 총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1조 3,600억원이었으며 기존점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사드 영향 제외시 1.0% 추정) 감소했다. 상품군별 추이는 가정/가전이 전년동기대비 13.0% 늘어나 유일하게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며 남성과 여성류는 각각 7.0%, 3.0%, 잡화는 6% 줄어들었다. 고마진 상품군 매출 부진으로 상품마진이 하락했고, 2분기 매출총이익률은 26.9%로 전년동기대비 0.8%p 낮아졌다. 영업외손익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배주주순이익은 영업이익 추이와 유사하게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했다.

#### ■ Positives : 하반기 영업환경 개선

하반기 영업실적은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8월 대구점 MD 리뉴얼 완료, 9월 천호점 주차공간 증가, 지난해 12월 대구점의 경쟁점 진입에 따른 매출 부진 등의 영향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근 매출 추이 또한 2분기 대비로는 다소나마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여전히 남성의류와 잡화 등의 매출은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3분기까지 상품마진 하락이 지속될 전망이다.

#### ■ Negatives : 기존점 매출 부진에 신규점 손실까지

영업이익 하락폭이 1분기 대비 더 커졌다. 일회성을 제외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 줄었는데, 2분기는 11.3% 감소했다. 의류 매출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사드 영향까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시작될 면세점 사업도 부담이다. 초기 손실이 불가피하며,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동대문 아울렛, 지난 5월 개장한 가든파라드 등의 영업손익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한 내년 실적도 기대하기 어렵다.

#### ■ 결론 :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0,000원 유지

기존점 부진에 신규점 손실까지 더해지며 영업손익이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의류 등 고마진 상품군 매출이 감소하여 더딘 외형 성장에 마진하락까지 겹쳤다. 단기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4분기로 갈수록 영업손익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업종 내 가장 낮은 PER multiple을 고려하면 주가의 추가적 하락보다 상승 여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백화점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주가는 12MF PER 8.2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12MF PER 10.0배에 해당한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90	436	(11.0)	460	(12.0)	(3.1)	1,900	1,916
영업이익	81	69	(14.8)	76	(50.1)	(11.3)	413	426
영업이익률(%)	16.5	15.8	(0.7)	16.5	(12.1)	(1.5)	21.7	22.2
세전이익	93	83	(11.1)	87	(49.2)	(9.1)	477	487
순이익	59	52	(11.7)	55	(49.4)	(10.5)	302	308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코스맥스(192820)

**매수(유지)**

목표가: 144,000원(유지)

종가(8/9): 111,500원

### 사드와 타이공을 넘어서고 있다

#### ■ What's new : 낮아진 눈높이 충족

2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2,190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21% 감소한 143억원(영업이익률 6.2%, -3.0%p YoY)에 그쳤다. 전년대비 감익이 지속되었으나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회복되면서 우리와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중국에서 증설 이후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전분기대비 실적 개선의 주요인이다. 부문별로 국내 매출액이 1,380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 영업이익은 70억원(영업이익률 5.1%, -5.3%p YoY)으로 전년동기대비 48% 급감했다. 중국 매출액(상해+광저우)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060억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10%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주 매출액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63억원, 순손실은 55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 ■ Positives : 견고한 해외 사업, 하반기부터 이익 개선 가능할 것

2월 가동이 시작된 상해 및 광저우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중국의 분기 매출액이 한 단계 도약했다. 중국 합산 매출액은 원/위안화 환율이 178원이었던 2Q16 790억원을 피크로 600~700억원대에 머물렀으나 금년 2분기 1,060억원으로 증가, 위안화 기준 매출액은 약 40% 성장했다. 중국 현지사업 매출 기여도는 하반기 약 40%에 달할 것이며 수익성이 높아 이익 기여도는 매출 기여도보다 높을 것이다. 중국 이익 기여도가 상승하고 미주 사업 손실이 축소되면서 하반기부터 전년 대비 이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 ■ Negatives : 사드 영향 지속, 예상보다 낮은 미주 매출

금년은 사드 영향권이다. 수출을 제외한 순수 내수 매출액은 동사 매출의 약 40%를 차지,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대상 화장품 시장 위축과 중국향 간접 수출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2016년 말 국내 증설로 인해 비용 부담도 가중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비용 증가 요인은 대부분 확인되었고, 오히려 완만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H&B 스토어, 홈쇼핑 화장품 등으로 고객사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인의 2분기 매출액은 기대를 하회했으나 3분기로 이월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영업손실도 축소될 전망이다.

#### ■ 결론 : 역동적인 중국 화장품 산업의 중심에 있다. 목표주가 144,000원 유지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44,000원(2018F PER 28배)을 유지한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수입 규제 강화에 따라 현지 생산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마케팅과 유통에 강점이 있는 로컬업체들의 성장이 가파르다. 중국 현지 생산 설비를 확보한 동시에 중국 내 상위 브랜드를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상위 ODM으로 자리 잡은 동사에게 기회 요인이다. 중국 사업 도약과 미주 영업 손실 축소에 힘입어 2018년부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 외형보다 수익성 개선이 가파를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42	232	(4.0)	235	6.0	17.5	923	924
영업이익	15	14	(3.3)	14	52.1	(21.2)	50	49
영업이익률(%)	6.1	6.2	0.0	6.1	1.9	-3.0	5.4	5.3
세전이익	13	15	12.6	12	223.5	(9.4)	43	41
순이익	10	11	5.7	9	208.1	(6.3)	33	31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한섬(020000)

**매수(유지)**

목표가: 46,000원(상향)

종가(8/9): 35,600원

### 다양한 브랜드와 채널로 내수 패션 사수한다

#### ■ What's new : M&A 영향은 우려보다 양호, 한섬 본업도 완만한 성장

2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107% 급증한 3,000억원,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119억원(영업이익률 4.0%)을 기록했다. 부가세 환급 10억원을 제외시 109억원으로 우리 예상과 유사,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부문별로 한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596억원(+9.9% YoY)과 89억원(+10% YoY), 한섬 외 자회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400억원과 30억원(영업이익률 2.1%)으로 추정된다. 본업에서 수입 상품 매출액은 'Chloe' 브랜드 영업 종료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제품 매출액이 두자리수 성장, 최근 3~4년 이내 출시된 브랜드 매출 기여가 컸고 TIME 등 기존 브랜드도 5% 내외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SK네트웍스 패션 부문의 첫 온기 실적이 반영되었으며 매출액은 인수 이전인 2Q16보다 소폭 증가했다.

#### ■ Positives : SK 패션 부문 예상보다 빠른 실적 기여

1분기 흑자에 이어 2분기 이익 기여도는 25%에 달했다. 소비 부진과 그룹 내 공통 비용배분, 중국 사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나 금년부터 완만한 회복 및 정상화가 예상된다. SK 패션 부문 인수 이후 금년 예상 매출액은 4,570억원, 영업이익 130억원(영업이익률 2%)으로 전사 이익 기여도는 14%로 예상된다. 중고가 패션브랜드의 영업이익률이 최소 5% 내외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높다. '오브제', '오즈세컨', 'Tommy Hilfiger', 'Club Monaco' 등 주력 브랜드의 브랜드력은 공고하고 구조 조정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

#### ■ Negatives : 본업 손익 정체, 그러나 하반기 낮은 베이스

상반기 부가세 환급 요인을 제거하면 3분기 연속 본업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원가율 상승이 주요인으로 추정, 아울렛, 홈쇼핑 등 저가 채널 확대와 신규 브랜드 출시로 인해 정상가판매율 상승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3분기까지 유의미한 실적 개선은 어려우나 최대 성수기인 4분기에 작년 4분기 내수 의류 소비가 매우 저조했고 일회성 재고자산관련 손실이 발생, 금년 4분기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온라인 사업 확대에 효율성 개선 노력이 진행형이고 3~4년차 브랜드 매출 성장이 빨라 점진적인 손익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 ■ 결론 : 목표주가 46,000원으로 상향, 중고가 의류 시장에서 사세 확장 지속될 것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42,000원에서 46,000원(12MF PER 13배, LF 대비 10% 할증)으로 상향한다. SK 패션 인수 이후 실적 기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실적 추정이 상향되었고 밸류에이션 시점도 이전되었다. 의류 소비는 정체되고 있으나 본업 또한 다양한 브랜드 출시 및 채널을 공략하면서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2MF PER 기준 10배, PBR 0.8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또한 부담 없는 수준이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88	300	4.1	297	22.7	106.6	1,238	1,246
영업이익	10	12	14.2	11	(56.8)	47.3	92	92
영업이익률(%)	3.6	4.0	0.4	3.6	-7.3	-1.6	7.4	7.4
세전이익	12	13	13.3	12	(58.4)	9.2	97	97
순이익	9	10	8.9	9	(61.4)	8.8	73	73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CJ E&M(130960)

**매수(유지)**

목표가: 108,000원(유지)

종가(8/9): 71,000원

## 무난하게 상반기를 지나다

### ■ What's new : 2분기 영업이익 67.2% 증가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시장 컨센서스와 우리 추정치를 각각 8.5%, 11% 하회했다. 연결 매출액은 4,253억원, 영업이익은 23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9.1%, 67.2% 증가해 영업이익률은 5.6%로 1.6%p 높아졌다. 부문별 영업이익은 방송 240억원(+17% YoY), 영화 -16억원(적자지속), 음악 24억원(+50.7% YoY), 공연 -7억원(적자지속)을 기록했다. 방송 부문은 디지털 광고, VOD, 콘텐츠 판매 등 기타 매출이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이익 증가를 견인했고, 음악 부문은 음반, 음원 수익이 늘며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 세전이익은 5,372억원(+1,027.9% YoY), 지배주주순이익은 4,049억원(+837.5% YoY)을 기록해 우리 추정치 대비 각각 3.2%, 3.6% 낮았지만 시장 컨센서스 대비 300% 이상 높았다. 지분법손익이 5,22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넷마블게임즈 손익에 따른 지분법이익이 205억원, 분기 중 상장에 따른 지분평가차익 5,009억원이 반영된 영향이다.

### ■ Positives : 디지털 광고, 콘텐츠 판매 등 고마진 사업의 성과 호조 지속

방송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한 3,321억원을 기록해 외형 확대를 견인했다. 기타 매출이 1,540억원으로 72.8% 늘어 고성장세를 지속했다. PIP, MCN 등이 디지털 광고 시장 성장을 이끌며 디지털 광고 매출은 72.4% 늘었고,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콘텐츠 판매는 28.6%, VOD는 22.3% 증가했다. 고마진 사업인 디지털 광고, 콘텐츠 판매, VOD 매출의 호조는 매출 성장과 이익 안정성을 높였다.

### ■ Negatives : 광고 매출의 감소와 영화 적자 지속

방송 부문 내 TV 광고 매출은 1,288억원(-2.6% YoY)으로 전분기에 이어 역성장해 기존 추정치(+1.8% YoY) 대비 낮았다. 인기 콘텐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광고 패키지 매출은 722억원(+19.9% YoY)으로 견조했지만 세컨티어(second-tier) 채널의 광고 판매율이 부진했다. 영화 부문은 1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가 지속됐다. 투자 배급 영화 '불한당' 등의 흥행 부진으로 극장 매출이 186억원으로 28.6% 감소했다. 제작 수익 등을 포함한 기타 매출액이 161억원으로 113.4% 늘어 라인업 흥행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지만 '공조(17년 1월 18일 개봉)' 제작 수익 반영에도 적자가 지속된 점은 아쉽다.

### ■ 결론 : 영업 가치 재부각 예상, 매수 의견 유지

CJ E&M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08,000원(SOTP 방식 적용, 표5)를 유지한다. 방송 부문은 채널/요일별 편성 전략을 강화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영화 부문 등은 수익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콘텐츠 경쟁력, 광고 업황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도 수익 호전은 지속될 전망이며 스튜디오드래곤 상장 등으로 영업 가치 재부각 가능성이 높다.

(단위: 십억원, %, %p)

	2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00	425	6.4	403	7.9	19.1	1,824	1,740
영업이익	27	24	(11.0)	26	1.0	67.2	94	94
영업이익률	6.6	5.6	(1.1)	6.4	(0.4)	1.6	5.2	5.4
세전이익	555	537	(3.2)	120	1,089.3	1,027.9	655	212
순이익	420	405	(3.6)	101	1,121.2	837.6	495	168

\*상기 보고서는 2017년 8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8/4(금)	8/7(월)	8/8(화)	8/9(수)	8/1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95.45	2,398.75	2,394.73	2,368.39	2,359.47	
	등락폭	8.60	3.3	-4.02	-26.34	-8.92	
	등락종목	상승(상한)	469(2)	458(0)	345(0)	202(0)	266(1)
		하락(하한)	335(0)	339(0)	447(0)	611(0)	539(0)
	ADR	88.11	93.36	92.00	90.48	87.44	
	이격도	10 일	98.96	99.31	99.33	98.51	98.48
		20 일	99.04	99.14	98.98	97.94	97.67
	투자심리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274	244	253	234	278
	거래대금	(십억 원)	5,084	4,428	4,624	4,694	6,182
코스닥	코스닥지수	641.58	648.39	651.67	642.87	640.04	
	등락폭	-1.51	6.81	3.28	-8.8	-2.83	
	등락종목	상승(상한)	534(1)	748(1)	602(3)	208(2)	327(1)
		하락(하한)	555(0)	344(0)	495(0)	926(0)	802(0)
	ADR	100.33	101.35	101.81	100.39	99.92	
	이격도	10 일	97.50	98.97	99.76	98.78	98.75
		20 일	97.21	98.31	98.84	97.56	97.23
	투자심리	30	30	40	40	40	
	거래량	(백만주)	459	456	608	849	764
	거래대금	(십억원)	2,671	2,449	2,588	3,023	3,14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451.7	1,604.6	1,964.3	903.2	98.6	173.2	82.0	14.6	692.7	66.7
	매도	2,616.1	1,901.8	1,528.8	654.9	80.4	161.7	88.1	19.0	524.6	40.6
	순매수	-164.4	-297.2	435.5	248.3	18.2	11.5	-6.1	-4.5	168.1	26.1
	8월 누계	-152.9	-835.4	730.9	574.0	29.3	114.1	-60.4	-39.7	113.5	257.5
	17년 누계	-5,118.2	7,863.3	-5,747.2	4,002.0	-1,530.1	-3,650.9	-270.0	-601.8	-3,696.7	3,002.2
코스닥	매수	2,740.5	249.9	148.3	48.4	11.5	28.2	19.1	2.0	39.1	12.4
	매도	2,761.7	225.7	134.1	42.8	13.8	29.5	20.3	2.6	25.2	29.5
	순매수	-21.2	24.2	14.2	5.6	-2.3	-1.3	-1.2	-0.6	13.9	-17.2
	8월 누계	175.8	-133.9	1.9	13.1	-0.5	-3.1	25.0	-1.4	-31.2	-43.7
	17년 누계	2,798.3	1,087.3	-2,763.6	-658.6	-366.6	-619.7	-321.5	-70.3	-727.0	-1,122.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3,224	증권	-5,166	전기전자	40,113	통신업	-9,800
전기전자	9,589	철강금속	-3,853	기타금융업	22,074	보험업	-7,089
유통업	6,506	통신업	-3,468	화학	22,006	은행	-1,159
TIGER 200	8,658	삼성화재	-5,153	삼성전자	12,906	삼성화재	-8,888
삼성전자	7,724	SK텔레콤	-3,077	LG전자	11,023	SK텔레콤	-4,976
KODEX 200	5,640	현대엘리베이	-2,809	LG	9,026	하나금융지주	-2,905
한화생명	4,248	한국금융지주	-2,741	만도	7,343	넷마블게임즈	-2,856
LG전자	4,094	SK하이닉스	-2,099	미래에셋대우	5,991	동부화재	-2,75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5,587	유통업	-3,213	전기전자	8,220	철강금속	-3,819
전기전자	2,434	기타금융업	-2,991	미분류	6,360	통신업	-1,540
증권	1,349	보험업	-1,742	화학	4,908	기타금융업	-1,328
KODEX 레버리지	14,114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9,105	삼성전자	3,635	현대제철	-2,740
KBSTAR 200선물인버스2X	1,937	KOSEF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합성)	-5,173	LG전자	3,521	GS	-2,287
KODEX 200	1,731	SK네트웍스	-1,836	코스맥스	2,661	삼성화재	-1,714
TIGER 200선물레버리지	945	SK텔레콤	-1,588	CJ제일제당	2,238	CJ	-1,691
KBSTAR 200	932	GKL	-1,157	삼성생명	2,162	삼성증권	-1,561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29,818	통신업	-26,858	증권	15,381	전기전자	-321,039
화학	54,548	증권	-4,616	화학	14,780	유통업	-15,759
서비스업	42,954	은행	-4,032	통신업	13,130	보험업	-8,727
삼성전자	146,473	KODEX 레버리지	-25,481	엔씨소프트	32,800	삼성전자	-232,664
SK하이닉스	41,100	삼성화재	-13,897	LG전자	20,751	SK하이닉스	-77,043
LG전자	20,989	SK텔레콤	-13,148	코스맥스	10,559	삼성생명	-13,366
LG이노텍	15,277	한국항공우주	-7,816	한화케미칼	9,769	LG디스플레이	-12,703
현대모비스	15,247	KT	-7,001	SK텔레콤	8,385	NAVER	-12,354
NAVER	13,322	LG유플러스	-6,710	현대로보틱스	7,926	삼성SDI	-11,441
LG	11,348	미래에셋대우	-4,886	LG화학	6,895	아모레퍼시픽	-8,472
한국전력	10,510	LG디스플레이	-4,823	기업은행	6,279	현대백화점	-7,568
LG생활건강	10,459	동부화재	-4,414	삼성증권	5,871	넷마블게임즈	-7,433
엔씨소프트	9,121	기아차	-4,169	기아차	5,381	LG이노텍	-7,42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3,873	미분류	-6,287	계약	6,592	기계, 장비	-3,512
IT부품	2,407	반도체	-1,955	IT부품	3,783	반도체	-354
방송서비스	1,582	화학	-1,197	방송서비스	1,379	화학	-347
이녹스첨단소재	1,729	컬러레이	-6,223	셀트리온	3,010	에스에프에이	-1,989
인터플렉스	1,514	에코프로	-1,394	비에이치	2,259	젠탭스	-1,057
휴젤	1,427	에스에프에이	-1,244	메디톡스	1,711	AP시스템	-668
셀트리온	952	AP시스템	-999	와이지-원	1,322	솔브레인	-641
CJ오쇼핑	928	동국S&C	-963	서울반도체	1,308	HB테크놀로지	-63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364	계약	-758	금속	1,450	계약	-1,457
비금속	171	연구,개발	-232	반도체	692	방송서비스	-938
도매	152	기타서비스	-155	소프트웨어	514	디지털컨텐츠	-816
오스템임플란트	445	메디톡스	-419	서울반도체	1,903	AP시스템	-1,939
포스코켄텍	171	휴젤	-360	와이지-원	1,520	휴젤	-1,183
리드코프	139	바이로메드	-207	실리콘웍스	831	더블유게임즈	-854
삼목에스폼	138	NICE평가정보	-155	에버다임	528	인크로스	-753
에스에프에이	111	옵트론텍	-149	코나아이	514	컬러레이	-702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3,757	미분류	-15,053	IT부품	10,015	미분류	-7,900
계약	12,008	반도체	-3,341	반도체	8,186	도매	-2,948
금속	2,387	화학	-2,315	계약	4,475	디지털컨텐츠	-1,410
인터플렉스	6,845	컬러레이	-15,167	인터플렉스	4,394	컬러레이	-9,029
셀트리온	4,776	AP시스템	-5,548	AP시스템	4,088	셀트리온헬스케어	-4,119
서울반도체	3,690	에스에프에이	-3,035	휴젤	3,443	오스템임플란트	-1,791
와이지-원	3,501	SKC코오롱PI	-2,242	파라다이스	2,673	CJ E&M	-1,614
비에이치	3,164	바텍	-1,686	에코프로	2,580	컴투스	-867
이녹스첨단소재	2,799	원익IPS	-1,345	유니슨	2,153	내츄럴엔도텍	-864
컴투스	2,173	인크로스	-1,127	포스코켄텍	1,661	솔브레인	-831
메디톡스	2,020	삼천당계약	-1,078	SKC코오롱PI	1,626	셀바이오텍	-639
메디포스트	1,933	젠탭스	-1,004	인바디	1,337	신라젠	-604
CJ오쇼핑	1,901	동국S&C	-983	이녹스첨단소재	1,269	대화계약	-60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세방	29 일	휴켄스	27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36 일	다나와	16 일
한화생명	25 일	GS	18 일	에이티젠	22 일	진로발효	14 일
화신	21 일	오리온	15 일	두울산업	22 일	피제이메탈	12 일
한전KPS	19 일	롯데하이마트	15 일	차이나그레이트	21 일	동원개발	11 일
계룡건설	19 일	LS산전	14 일	유안타제2호스팩	20 일	하이록코리아	10 일
삼원강재	17 일	기업은행	13 일	코아시스템	20 일	우성아이비	9 일
대경기계	17 일	세아특수강	13 일	우리기술	18 일	멀티캠퍼스	9 일
동일제강	17 일	경인전자	12 일	삼현철강	17 일	금화피에스시	9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67,756	엔씨소프트	74,282	셀트리온	86,864	파라다이스	18,600
LG전자	76,162	현대로보틱스	55,393	파라다이스	16,155	AP시스템	8,055
엔씨소프트	58,753	롯데케미칼	45,278	비에이치	14,648	에코프로	6,365
SK하이닉스	47,145	신한지주	36,255	인터플렉스	12,333	코웰패션	5,502
NAVER	45,728	LG화학	27,089	와이지-원	11,004	CJ오쇼핑	5,490
LG화학	45,496	고려아연	23,191	메디포스트	9,929	이녹스첨단소재	5,378
현대위아	41,829	KB금융	22,308	CJ오쇼핑	9,386	더블유게임즈	4,858
LG이노텍	32,394	한국전력	20,991	주성엔지니어링	6,427	SKC코오롱PI	4,513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54,548	14,780	69,328	IT부품	13,757	10,015	23,771
서비스업	42,954	9,549	52,503	제약	12,008	4,475	16,483
기타금융업	30,196	9,524	39,719	오락,문화	1,385	3,168	4,553
엔씨소프트	9,121	32,800	41,921	인터플렉스	6,845	4,394	11,239
LG전자	20,989	20,751	41,740	셀트리온	4,776	168	4,944
코스맥스	6,891	10,559	17,451	파라다이스	1,543	2,673	4,216
LG화학	7,436	6,895	14,332	이녹스첨단소재	2,799	1,269	4,068
현대로보틱스	2,744	7,926	10,671	휴젤	621	3,443	4,064
KT&G	5,621	3,057	8,678	와이지-원	3,501	39	3,540
현대글로벌비스	7,815	172	7,987	비에이치	3,164	143	3,307
일진머티리얼즈	1,256	5,230	6,485	메디투스	2,020	1,149	3,170
S-Oil	5,850	561	6,410	CJ오쇼핑	1,901	1,006	2,907
카카오	4,241	1,812	6,053	메디포스트	1,933	896	2,82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AJ네트웍스	19 일	백광소재	28 일
코스맥스비티아이	18 일	계룡건설	28 일
일정실업	18 일	영풍제지	20 일
KINDEX 골드선물 인버스2X(합성H)	17 일	한화생명	19 일
메리츠화재	17 일	동원금속	16 일
QV HMR 테마 ETN	13 일	삼양통상	16 일
QV 제약 TOP5 ETN	11 일	전방	15 일
KOSEF 코스피100	11 일	유니온	1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그랜드백화점	52 일	크로바하이텍	32 일
남화토건	18 일	인탑스	31 일
아미코젠	17 일	디지털아이	31 일
아이티센	16 일	이라이콤	31 일
AP시스템	15 일	이상네트웍스	25 일
더블유게임즈	15 일	동양피엔에프	20 일
큐렉소	13 일	탐엔지니어링	20 일
상아프론테크	12 일	엠에스씨	19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37,759	삼성전자	-469,687
LG디스플레이	-25,041	SK하이닉스	-229,639
한국항공우주	-24,660	LG디스플레이	-38,991
삼성화재	-22,856	NAVER	-36,283
현대로보틱스	-21,560	한국항공우주	-30,750
CJ대한통운	-20,485	한화생명	-30,253
SK텔레콤	-19,867	LG이노텍	-27,362
넷마블게임즈	-18,488	아모레퍼시픽	-23,198

KOSDAQ			
기	관	외	국 인
컬러레이	-15,167	셀트리온헬스케어	-28,793
AP시스템	-12,065	셀트리온	-14,298
더블유게임즈	-11,899	휴젤	-13,274
모트렉스	-10,263	모트렉스	-9,884
코웰패션	-6,860	컬러레이	-9,029
파인디앤씨	-6,599	메디투스	-8,384
이녹스첨단소재	-5,349	주성엔지니어링	-6,911
메디투스	-4,329	CJ E&M	-6,518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29,818	-321,039	-91,221
통신업	-26,858	13,130	-13,728
보험업	-264	-8,727	-8,992
LG디스플레이	-4,823	-12,703	-17,526
현대백화점	-1,723	-7,568	-9,291
KT	-7,001	0	-7,001
고려아연	-3,375	-2,099	-5,474
삼성전기	-1,142	-3,890	-5,031
삼성중공업	-757	-1,813	-2,571
동국제강	-1,725	-815	-2,541
현대건설기계	-1,455	-252	-1,707
동양생명	-1,581	-125	-1,706
환인제약	-530	-770	-1,300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미분류	-15,053	-7,900	-22,953
화학	-2,315	586	-1,729
자동차판매	-932	-345	-1,277
컬러레이	-15,167	-9,029	-24,196
CJ E&M	-932	-1,614	-2,546
삼천당제약	-1,078	-479	-1,557
도이치모터스	-932	-327	-1,259
젬백스	-1,004	-201	-1,205
인크로스	-1,127	-40	-1,167
테라세미콘	-601	-499	-1,100
더블유게임즈	-804	-278	-1,081
국보디자인	-633	-370	-1,003
SK머티리얼즈	-368	-599	-96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현대로보틱스	57	27,263
LG디스플레이	762	22,816
삼성전자	6	14,856
KODEX 200	471	14,643
신한지주	195	10,689
삼성전기	90	8,453
KT&G	68	7,672
SK하이닉스	112	7,23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파라다이스	264	3,956
셀트리온헬스케어	79	3,776
인터플렉스	63	2,513
주성엔지니어링	154	2,503
테라세미콘	65	2,005
이녹스첨단소재	28	1,944
테스	52	1,546
메디투스	2	1,165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002	9,260,378
SK하이닉스	39,749	2,551,864
엔씨소프트	3,309	1,288,793
LG디스플레이	40,123	1,199,665
하나금융지주	23,435	1,164,705
NAVER	1,352	1,079,016
현대로보틱스	2,218	1,053,515
KB금융	16,979	984,79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5,488	2,762,903
바이로메드	2,694	279,100
파라다이스	16,739	251,921
로엔	2,704	233,084
코미팜	4,171	160,158
메디투스	288	145,757
신라젠	5,729	144,945
SK머티리얼즈	506	93,532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계	6,797	운수장비	-1,022
전기전자	5,108	화학	-914
증권	3,852	음식료	-741
LG디스플레이	4,320	디아이씨	-796
메리츠증권증권	3,764	우리종금	-765
두산중공업	3,508	현대중공업	-629
두산인프라코어	3,239	GS건설	-615
대우건설	2,902	후성	-488
한국토지신탁	2,374	미래에셋대우	-466
영진약품	2,081	오리온홀딩스	-409
삼성엔지니어링	1,969	OCI	-407
한화생명	1,886	기아차	-385
기업은행	1,780	팬오션	-37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운송장비, 부품	1,499	비금속	-1,061
기계, 장비	1,354	오락, 문화	-623
소프트웨어	1,208	제약	-493
브레인콘텐츠	909	유진기업	-1,362
위지트	884	셀트리온	-851
신라젠	661	루멘스	-844
엘비세미콘	641	동국산업	-619
셀트리온헬스케어	603	씨젠	-608
코나아이	590	파트론	-577
솔고바이오	567	시노펙스	-437
포스코 ICT	519	원익IPS	-363
코다코	474	인탑스	-272
삼표시멘트	469	성광벤드	-270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4(금)	8/7(월)	8/8(화)	8/9(수)	8/10(목)
외국인	7,863.3	-835.4	-532.2	-163.7	93.3	91.7	-256.3	-297.2
기관계	-5,747.2	730.9	711.3	214.8	-94.2	-150.0	305.2	435.5
(투신)	-3,650.9	114.1	68.7	-4.4	21.3	36.8	3.6	11.5
(연기금)	1,248.7	480.7	565.1	53.1	-16.1	136.3	248.2	143.6
(은행)	-601.8	-39.7	-25.5	-0.4	-8.9	0.7	-12.5	-4.5
(보험)	-1,530.1	29.3	44.4	37.7	-5.3	-1.9	-4.2	18.2
개인	-5,118.2	-152.9	-342.8	-94.7	-40.2	43.1	-86.7	-164.4
기타	3,002.2	257.5	163.8	43.6	41.1	15.2	37.8	26.1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8/3(목)	8/4(금)	8/7(월)	8/8(화)	8/9(수)
KOSPI	1,961.3	2,026.5	2,359.5	2,386.9	2,395.5	2,398.8	2,394.7	2,368.4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4,067.7	24,468.0	24,250.7	24,382.3	23,593.1	24,067.7
(증감액)	6,853.1	58.8	1,313.3	-275.4	-217.3	131.6	-789.2	474.6
(회전율)	28.8	24.8	32.1	39.6	32.0	28.2	30.6	32.1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816.6	-343.9	-200.8	574.1	-771.2	422.3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063.6	4,100.3	4,100.2	4,083.6	4,062.7	4,063.6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359.5	4,390.2	4,396.2	4,373.0	4,357.8	4,359.5
미수금	151.0	125.6	128.1	128.6	125.3	167.3	148.6	128.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8/2(수)	8/3(목)	8/4(금)	8/7(월)	8/8(화)
전체 주식형	69,507	-5,620	-43	-187	-21	-84	20	-51
(ex.ETF)		-5,200	-264	-27	-55	12	-40	-103
국내주식형	52,019	-5,435	2	-198	-19	-60	37	-43
(ex.ETF)		-4,999	-229	-37	-53	26	-22	-94
해외주식형	17,488	-185	-45	10	-2	-24	-17	-8
(ex.ETF)		-201	-35	10	-2	-14	-17	-8
주식혼합형	8,713	655	129	6	15	14	11	10
채권혼합형	20,847	-5,425	-146	-16	-38	-28	-7	-15
채권형	104,284	1,836	-763	76	-191	10	-223	-430
MMF	132,743	28,428	2,673	2,557	2,372	-299	477	-2,13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8/4(금)	8/7(월)	8/8(화)	8/9(수)	8/10(목)
한국	6,820	-725	-457	-145	83	81	-225	-251
대만	8,326	-223	-334	-65	-17	-23	-230	-
인도	8,984	89	135	-136	-26	298	-	-
인도네시아	410	-92	-48	-14	-26	-20	12	-
태국	-14	-208	-51	-28	-22	-27	26	-
남아공	-3,532	-120	-52	-103	58	-7	-	-
필리핀	468	21	15	0	-1	9	7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8/4(금)	8/7(월)	8/8(화)	8/9(수)	8/10(목)
회사채 (AA-)	2.14	2.28	2.31	2.33	2.36	2.35
회사채 (BBB-)	8.27	8.52	8.55	8.58	8.60	8.59
국고채 (3년)	1.64	1.74	1.77	1.81	1.83	1.82
국고채 (5년)	1.80	1.95	1.98	2.01	2.04	2.02
국고채 (10년)	2.08	2.25	2.29	2.31	2.34	2.32
미 국채 (10년)	2.56	2.26	2.25	2.26	2.25	-
일 국채 (10년)	0.06	0.07	0.07	0.07	0.06	-
원/달러	1,210.50	1,125.00	1,127.10	1,125.10	1,135.20	1,142.00
원/100엔	1,030.04	1,003.00	1,017.61	1,016.90	1,031.16	1,038.93
엔/달러	117.52	110.96	110.76	110.64	110.09	109.93
달러/유로	1.05	1.17	1.18	1.18	1.17	1.17
DDR3 1Gb (1333MHz)	1.15	1.23	1.23	1.23	1.23	-
DDR3 2Gb (1333MHz)	1.50	1.70	1.70	1.70	1.70	-
NAND Flash 16Gb (MLC)	1.87	2.97	2.97	2.97	2.97	-
CRB 지수	193.97	182.71	183.01	183.14	183.62	-
LME 지수	2,663.2	2,979.7	3,015.3	3,064.1	3,058.0	-
BDI	961	1,032	1,036	1,038	1,050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49.58	49.39	49.17	49.56	-
금 (달러/온스)	1,131.35	1,257.70	1,258.00	1,261.80	1,271.0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1	1	2	3	4
中> 7월 제조업 PMI (51.4, 51.5, 51.7) 日> 6월 광공업생산 MoM (1.6%, 1.5%, -3.6%) 유럽> 7월 유로존 제조업 PMI (n/a, 56.8, 56.8)	韓> 7월 CPI YoY (2.2%, 2.1%, 1.9%) 7월 수출 YoY (19.5%, 15.9%, 13.7%) 美> 7월 미국 마켓 제조업 PMI (53.3, 56.4, 53.2) 6월 개인소득 (0.4%, 0.0%, 0.4%) 7월 ISM 제조업지수 (56.3, 56.2, 57.8) 유럽> 2분기 GDP YoY (2.1%, 2.1%, 1.9%) 中> 7월 차이신 중국 PMI 제조업 (51.1, 50.4, 50.4) 日> 7월 닛케이 PMI 제조업 (52.1, n/a, 52.2)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8%, n/a, 0.4%)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0, 243, 244) 6월 내구재 주문 (6.4%, 0.0%, 6.5%) 6월 제조업수주 (3.0%, 3.0%, -0.3%)	美> 7월 비농업고용자수변동(천건) (209, 180, 222) 7월 실업률 (4.3%, 4.3%, 4.4%) 6월 무역수지(십억달러) (-43.6, -44.5, -46.5)
7	8	9	10	11
	日> 6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934.6, 860.5, 1653.9)	韓> 7월 실업률 (3.6%, n/a, 3.8%)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3.0%, n/a, -2.8%) 中> 7월 CPI YoY (1.4%, 1.5%, 1.5%) 7월 PPI YoY (5.5%, 5.6%, 5.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40, 240) 7월 PPI 최종수요 MoM (n/a, 0.1%, 0.1%) 日> 6월 핵심기계수주 MoM (-1.9%, 3.6%, -3.6%) 7월 PPI YoY (2.6%, 2.3%, 2.1%) 6월 3차 산업지수 MoM (0.0%, 0.2%, -0.1%)	美> 7월 CPI MoM (n/a, 0.2%, 0.0%)
14	15	16	17	18
日> 2Q GDP SA YoY (n/a, -0.5%, -0.8%)	美> 7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5%, -0.2%) 日> 6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1.6%)	美> <b>FOMC 회의록 공개</b>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3.0%) 7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220, 1215) 유럽> 2분기 GDP YoY(잠정) (n/a, n/a, 2.1%)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7월 광공업생산 MoM (n/a, 0.1%, 0.4%) 7월 선행지수 (n/a, n/a, 0.6%) 유럽> 7월 CPI YoY (n/a, n/a, 1.3%)	美>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93.4)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